운강석굴 5만불상 살아 움직이듯…

동국불교미술인회 중국 불적답사 동행기

◇무주산 남쪽 기슭 1km에 걸쳐 조성된 운강석굴 전경.

◇운강 20호 굴의 노천대불좌상(14m).

◇항산의 서쪽 취병봉 낭떠러지에 건립된 현공사.

동국불교미술인회(회장 이진형)는 3일부터 8일까지 중국 오대산 불적답사 및 한·중 불교미술문화교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조각과 탱화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불교예술인들이 주축이 된 36명의 답사객들은, 중국 불교 4대 명산의 하나로 찬란한 중국불교문화가 살아 숨쉬는 오대산과 석굴 예술의 보고인 운강석굴 등을 꼼꼼히 둘러봤다. 특히 처음으로 개최된 불교미술문화교류 학술대회는 한·중 문화교류의 새로운 물꼬를 텄다는 평가다.

전날 비가 온 탓인지 북경의 밤은 예상과 달리 덥지 않았다. 하지만 웃옷을 벗어 던진 채 길거리로 뛰쳐나온 시민들의 모습에서 섭씨 40도를 넘나든다는 북경의 찜통 더위를 감지할 수는 있었다. 일행은 북경의 극심한 더위를 피해 야간 열차에 몸을 싣고 내몽골에 인접한 산서성 대동으로 향했다. 약 7시간 걸려 도착한 대동은 운강석굴을 비롯해 유서 깊은 고찰들이 있는 도시이다. 이어 버스로 갈아타고 검은 탄전지대를 지나 운강석굴 앞에 섰다.

무주산 남쪽 기슭 약 1km에 걸쳐 남향으로 뚫린 운강석굴은 4세기 말 북위왕조(386~534)가 남겨놓은 불교예술의 꽃이자 북위미술의 보고이다. 동에서 서로 한 굴씩 단층으로 뚫려 있는 운강석굴은 장엄한 외형만으로도 탐방객들을 주눅들게 한다. 이어서 53개의 굴 속에 봉안된 17m에서부터 손바닥만한 크기의 불상 5만 1천여 구는 감탄사를 내뱉을 틈도 주지 않고 신비감에 빠져들게 한다. 이러한 신비감은 굴 속으로 들어가면서 극치를 이룬다. 본존불 사방에 새긴 여러 조각상과 비천, 그리고 꽃과 새로 장엄한 조각의 세계는 황홀하기 그지없다. 특히 이 조각상들의 외상이 적·녹·황색으로 채식되어 굴 속은 살아 움직이는 세계인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그런데 이 거대한 절벽이 단 몇 십년 만에 조성됐다는 안내자의 설명에서 답사객들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가운데 20호 굴 노천대불은 우리 나라 역사 교과서에 소개될 만큼 유명한 불상이다. 노천에 자리한 이 좌불의 높이는 14m. 커다란 두 귀가 어깨 위에 닿을 정도로 장대한 모습이다. 5굴은 운강석굴 최대 높이인 17m의 좌상이 사방 벽에 조각된 크고 작은 불상에 둘러 싸여 있다. 그리고 7~19 석굴까지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중국의 전통적 조소 기법에 인도, 아프카니스탄, 페르시아의 양식이 합쳐져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낙양 용문석굴과 돈황 막고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의 하나로 중국미술사에서 가장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운강석굴을 참배한 일행들은 아쉬움을 뒤로한 채 상·하 화엄사로 발길을 옮겼다. 상·하 화엄사는 운강석굴과 함께 2천4백여 년의 긴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대동의 대표적 불교성지이다. 하화엄사에 도착한 일행들은 박가교장(薄伽教藏)이란 현판 앞에서 걸음을 멈춘다. 불경을 보관하고 있는 전각이란 뜻이다. 이 전각에는 나무로 된 38칸의 경장고가 있고 그 안에는 1만 8천 여권이 경전이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법당에 봉안된 31개의 불상은 운강석굴과 함께 대동의 큰 자랑거리이다.

14m 노천대불 장대함 눈길
오대산 10여개 사찰불화 살펴
남선사 소조불상 조각의 진수

웅장한 중국불교미술에 대한 희열과 아쉬움을 채 삭이기도 전에 항산 현공사로 향했다. 항산의 서쪽 취병봉 낭떠러지에서 30여미터 높이에 위치해 있는 현공사는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지만 1천5백년 동안 자리를 틀고 있다. 멀리서도 깎아 지른 듯한 절벽에 제비집처럼 매달려 있는 현공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장관이다. 이 절의 가장 큰 볼거리는 감실을 파고 조성한 마애불이다.

◇불화를 그리는 중국 불교예술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동국불교미술인회원들.

◇오대산의 상징인 65m 높이의 탑원사 백탑.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목조 건축물인 오대산 남선사 대불전.

이어 끝없는 광야지대에 펼쳐지는 옥수수, 해바라기와 험준한 고원의 풍광을 감상하며 문수신앙의 중심지 오대산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일행들은 2일 동안 머물며 오대산 최대 사원인 보살정을 시작으로 오대산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백탑(56m)이 봉안된 탑원사, 뒤엉킨 교룡과 짐승들, 새와 벌레, 인물과 꽃 등이 마치 살아 있는 듯 정교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석패방(石牌坊) 있는 용천사, 오대산의 우국사·극락사·선덕당 3사를 합한 남산사, 8만평방미터의 대웅전, 무량전, 문수전, 천불전 동전 등이 일직선상에 배치한 현통사 등 10여 사찰을 둘러봤다.

오대산 답사일정을 마친 일행들은 북경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대산 입구의 남선사와 불광사를 찾았다. 남선사에는 6동의 고건물이 남아 있는데, 대불전은 당 덕종 건중 3년(782)에 건축된 것으로 현존하는 중국 최고의 목조건축물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건축된 대불전은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연상케 할 정도로 단아하다. 특히 대불전 안에는 채색된 소조불상이 봉안돼 있는데, 석굴이 아닌 사원건축에 채색된 소조불상이 남아 있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중앙본존과 좌우 각 8구씩 협시상이 다양한 크기로 배치되어 있다. 이 보살상들은 화려한 보관, 풍만한 용모와 잘록한 허리, 얇은 천의의 유려한 자태 등이 육감적으로 묘사되어 당대 조각의 진수를 보여준다.

3박 4일간 운강석굴과 오대산 불적답사를 마친 일행들은 북경에 도착, 북경대학교 세미나실에서 한·중 불교미술문화교류 학술대회를 가졌다. 학술대회에서 장충식 교수(동국대 박물관장)는 '중국 오대산 신앙의 한국 유입문제'에 대해, 김상현 교수(동국대 사학과)는 '신라의 의상과 종남산'에 대해 중국에서는 북경대학 류우열 교수(종교학)가 '중국불교현황'에 대해, 왕띠 씨(불교미술전문가)가 '불사장엄에 대하여'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서울에 도착해서도 "수천년이 지난 오늘에도 선명한 색채를 띠고 있는 불화가 아직도 생생하다"며 "그 비결이 무엇일까"라며 되뇌이는 한 일행의 모습이 긴 여운으로 남는다.

중국(山西省)=김종근 기자
(gamja@buddhapia.com)

독한향으로 인한 고통, 천연향으로 싹 해결하십시오

한국 천연향의 자존심 피우는 우리의 향수

◀① 일각문▶

마음을 여는 문을 가르키는 이름으로 마음의 여백을 향기로 열어주는 심연의 향기로서 궁중이나 사원에서 널리 애용되어 온 순수 전통 천연향으로 특히 침향, 울릉도 자단향, 영능향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향기가 매우 고귀하고 맑아 마음과 정신 육신을 능히 맑게하고 밖으로는 하늘까지 통하고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오장육부까지 그 향기가 전해지는 향

◀③ 백 난▶

옛부터 소향의 가루향으로 많이 쓰이는 향재를 사용한 것으로 목향, 육계, 정향, 난향등을 잘 조화를 이룬 제향기술로 사향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그 향기가 미묘하고 아름다워 자연과 하나가 됨을 느끼게 하는 향

◀② 신금난▶

백단향 백리향과 금산향만의 특이한 3대째 내려오는 장인정신이 깃든 배합과 숙성기술로 탄생된 명향으로 일본에서 한중일 무역박람회에서 우리의 천연향기로 세계인을 놀라게 한 일명 피우는 우리의 향수! 피울때는 정신을 맑게하고 그 잔향은 몸에 베어 은은하게 흘러 나와 타인의 기분까지 좋게 하는 우리 선조의 이웃사랑정신을 알게 하는 향

특별보급가격 42,000원

◈보 급 처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69-1번지
◈일 터 :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498-2번지
◈http://www.ksbuy.co.kr

錦山香堂
천연향만을 고집하며 3대를 이어온 100년 전통의 금산향당

문의 ◈TEL : 051)518-3017~8
◈FAX : 051)518-3019
◈무료전화 : 080-776-7000

『우리 곁에 다녀간 부처』
성철 대선사 기념메달 보급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참 뜻만 깨쳐도 우리는 이미
큰스님과 함께 삼법인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소재 : 황동(순금도금) ■직경 : 80mm ■가격 : 5만원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성철 대선사 기념 메달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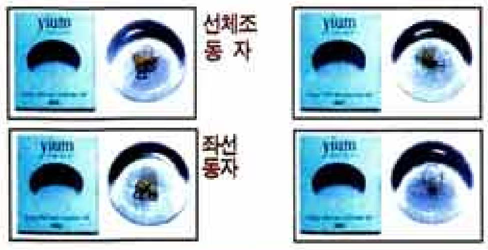
■판매 : 인터넷 불교 백화점 마하몰 ■제조 한국조폐공사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

몸 가꾸기, 마음 가꾸기
무공해 복합한방 미용비누

천연, 한방원료를 사용하여 피부의 노폐물 및 메이커 업 잔여물 까지도 깨끗이 한불의 투명 미용비누는 키토산, 죽염, 홍삼 황토, 프로 폴리스 등 천연원료를 과학적으로 배합하여 세정 마사지 효과, 피부노화방지 효과, 잔주름예방 효과, 미백효과 등 평상시 피부 관리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무공해 미용비누 입니다.

투명한 비누 속에 귀여운 동자승의 모습은 마음이 맑으면 몸도 맑아진다는 선조들의 입상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것 입니다!



제품가격
■1개 당 : 3,000 원 (4개 구입시 10,000원)
■200개 이상 : 2,500원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500개 이상 : 2,000원 주문자 디자인 투명비누 속에 삽입

금비누(특별상품)

순금은 피부에 접촉하면 음이온을 띰으로 피부의 산성도를 높여 보호력 강화 및 피부층에 화장품 성분 침투가 쉽게 되도록 피부의 혈액순환을 도우고 독소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천연 순 식물성 한방 투명 비누에 순금 가루를 삽입하여 미용 효과를 더해 줍니다.

제품가격 ▶1 개 15,000원 ▶100개이상 14,000원
각각의 금비누 포장 상자에 주문자 디자인 스티커 또는 인쇄

•전화:02-732-1522 / 737-8881 •팩스:02-737-0697 •인터넷:http://www.mahamall.co.kr